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기출문제, 출제의도 및 해설

2014. 11. 22(토) 오후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논 술 고 사

한국외국어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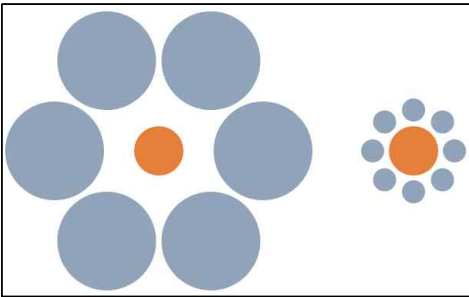
고사장번호()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유 의 사 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검정색 펜만을 사용할 것.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1>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Hermann Ebbinghaus)는 원을 통해 인간의 착시 현상을 조명하였다. 주어진 그림은 동일한 크기의 원이라도 주변을 둘러싼 다른 원의 크기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게 감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게슈탈트 심리학(Gestalt Psychology)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과정은 순수 논리나 계산에 의한 추리방식과는 다르다. 인간은 객관적인 논리에 의

해서라기보다 주변상황이나 세상사와 같은 사전지식에 근거해 하향식으로(top-down) 사물이나 현상을 수용하여 창의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해결에는 각 요소에 하나씩 집중하는 것보다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독일의 심리학자 볼프강 쾰러(Wolfgang Köhler)는 하향식 사고방식에 결정적 열쇠가 되는 통찰(insight)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한 바 있다. 쾰러는 자신이 설계한 실험에서 철장 안 침팬지의 행동을 관찰했다. 철장 속 천장에는 밧줄로 바나나를 매달아 놓고 바닥에는 몇 개의 상자를 여기저기 흩어 놓았다. 침팬지는 바나나를 따기 위해 갖은 애를 써보다가 잠시 행동을 멈추고 상황을 살핀 뒤, 한쪽 구석에 놓인 상자를 보고는 그것들을 옮겨 차례로 쌓아 올린 뒤 결국 바나나를 손에 넣었다. 이 실험 결과를 보면 바나나와 상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별적인 요소들처럼 보이지만 침팬지는 이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성립시켰다. 쾰러는 이 실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침팬지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침팬지는 바로 이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쾰러는 이것을 통찰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급속도로 변모하는 현대사회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많은 대상과 사태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때 통찰력의 부재는 이러한 파편들에 대처하는 사고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만다. 개별 사실들이 그럴듯한 즉 유의미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상황 고유의 관점에서 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해결의 열쇠를 찾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외적인 세계의 객관적 사실들에 앞서 이를 조망할 수 있는 사전지식과 경험, 주어진 상황과 목적에 맞는 통찰이야말로 창의적이며 발전적인 결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된다.

Wolfgang Köhler, *Die Aufgabe der Gestaltpsychologie* 의

<자료 2>

Social stereotypes are often formed initially from specific experiences or from observations of one or more individuals. These specific impressions become a stereotype when this information is then generalized to apply to all members of a group, regardless of circumstances. This creates difficulties when circumstances change but the stereotype does not, or when a stereotype is used as a substitute for gathering accurate information about a person. For example, a friend of mine once reported an experience that his 6-year-old son had at school. The teacher had asked the children to draw a picture of their fathers relaxing. When the teacher saw the boy drawing a picture of a man chopping wood, she said, "No, I said draw him relaxing." Bursting into tears, the 6-year-old exclaimed, "But my daddy does chop wood to relax!" In fact, his father's work involved sitting at a desk all day long. The teacher's stereotype, not the boy's drawing, was the problem. Stereotypes, as top-down mental schemas*, can lead us to prejudge others—and all schemas carry this risk of distorting reality.

The likelihood that we will recognize such distortions is reduced by a phenomenon called confirmation bias**. Generally, we tend to focus on information that confirms our beliefs and ignore potentially contradictory information. Ironically, the more confident we are in our beliefs, the more likely is the danger of distortion, because we are less likely to look for information that might reveal our errors. Thus, a doctor with 30 years of experience is less likely to recognize when he has made a diagnostic error than a newly-graduated intern—since greater experience instills greater confidence.

* schema: 도식(圖式)

** confirmation bias: 확증편향(確證偏向)

Glassman E. William, *Approaches to Psychology*

[문제 1]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설명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자료 1>의 관점에서 <자료 2>가 지적한 한계를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 뒷면에 계속 >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3>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기대]									
<교사>			<학부모>			<학생>			(단위: %)
교육목표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기본 지식	39.7	37.3	36.6	54.8	58.1	56.1	49.5	35.2	22.9
도덕성	53.0	54.7	56.9	32.6	30.5	30.8	23.7	20.5	14.5
개성과 창조성	5.9	6.6	3.4	10.4	9.4	9.3	17.7	32.1	42.9
기타	1.4	1.4	3.1	2.2	2.0	3.8	9.1	12.2	19.7

※ 9개 집단별 표본 크기는 동일함. 이은주, 「통계, 학교를 말한다」

<자료 4>

“선생님 서화는 예(藝)입니까, 법(法)입니까, 도(道)입니까?” / “도(道)다.”

“그럼 서예(書藝)라든가 서법(書法)이란 말은 왜 있습니까?”

“예는 도의 향이며, 법은 도의 옷이다. 도가 없으면 예도 법도 없다.”

“예가 지극하면 도에 이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는 도의 향이 아니라 도에 이르는 문이 아니겠습니까?”

“장인(匠人)들이 하는 소리다. 무엇이든 항상 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글씨며 그림을 배우는 일도 먼저 몸과 마음을 닦는 일이겠군요?”

“그렇다. 그래서 왕우군(王右軍)은 비인부전(非人不傳)이란 말을 했다. 너도 이제 그 뜻을 알겠느냐?”

이미 육순에 접어들어 늙음의 기색이 완연한 석담 선생은 거기서 문득 밝은 얼굴이 되어 일생을 불안하게 여겨 오던 제자의 얼굴을 살폈다. 그러나 고죽은 끝내 그의 기대를 채워 주지 않았다.

“먼저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이제 예닐곱 살 난 학동들에게 붓을 쥐여 자획을 그리게 하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만약 글씨에 도가 앞선다면 죽기 전에 붓을 잡을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기예를 닦으면서 도가 아우르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평생 기예에 머물러 있으면 예능이 되고, 도로 한 발짝 나가게 되면 예술이 되고, 혼연히 합일되면 예도가 된다.”

“그것은 예가 먼저고 도가 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도를 앞세워 예기(藝氣)를 억압하는 것은 수레를 소 앞에다 묶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석담 문하에 든 직후부터 반생에 이르는 고죽의 항변이기도 했다. 그에 대한 석담 선생의 반응도 날카로웠다. 그를 받아들일 때부터의 불안이 결국 적중하고 만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으리라.

“이놈, 네 부족한 서권기(書卷氣)와 문자향(文字香)을 애써 채우려 들지는 않고 도리어 요망스러운 말로 얼버무리려 하느냐? 학문은 도에 이르는 길이다. 그런데 너는 경서(經書)에도 뜻이 없었고, 사장(詞章)도 즐거워하지 않았다. 오직 붓끝과 손목만 연마하여 선인들의 오묘한 경지를 자못 여실하게 시늉하고 있으니 어찌 천예(賤藝)와 다름이 있겠는가? 그래 놓고도 이제 와서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사람의 드높은 정신의 경지를 평하려들다니 뻔뻔스러운 놈.”

* 왕우군(王右軍): 서성(書聖)으로 일컬어지는 중국 진나라의 서예가 왕희지를 말함.

* 비인부전(非人不傳):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면 가르치지 않는다는 뜻.

* 서권기(書卷氣)와 문자향(文字香): 책을 많이 읽고 교양을 쌓으면 몸에서 책의 기운이 풍기고 문자의 향기가 남을 뜻함.

* 사장(詞章): 시가와 문장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이문열, 「금시조」

<자료 5>

(가) 언어학자들은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문자들 중에서 한글이 남다른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한다. 이를테면 문자 창제의 과정과 원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글이 유일하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문자는 이미 존재하는 문자를 모방하거나 변형하여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한글 자음의 기본자는 소리 내는 데 관여하는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발음 작용을 본떠 아음(牙音, 어금닛소리), 설음(舌音, 혀소리), 순음(脣音, 입술소리), 치음(齒音, 잇소리), 후음(喉音, 목구멍소리)에 해당하는 글자로 만들었다. 모음은 우주 만물의 기본이 되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각각 본떠 만들었고, 하늘은 둥글고 [·], 땅은 평평하며 [ㅡ], 사람은 그 가운데 서 있는 모양[]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하여 기본 모음 세 자를 만들었다. 이들을 결합하거나 획을 더하는 방법으로 모음 열한 자를 만들었다.

(나) 한글의 또 다른 특성은 창제자가 각각의 소리에 대응하여 글자를 만든 후 그것을 조합하여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통합성을 발휘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첫소리, 가운뎃소리, 끝소리를 자음과 모음으로 결합하여 음절을 만들고 하나로 발음하도록 하였다. 통합성은 애민(愛民)이라는 창제자의 철학, 당대의 주류 학문인 성리학과 음양오행 사상까지 창제에 반영한 데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음운학 이론서는 물론이고 몽골, 여진, 일본 등의 문자 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종합하여 우리말에 맞는 문자를 만든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oo출판사, 고등학교 『국어』

[문제 3] <자료 3>과 <자료 4>를 가치관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자료 3>의 설문조사 결과 전반에 대해 <자료 5-가>의 주된 가치에 입각하여 해석한 후, <자료 5-나>의 주제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목표의 바람직한 방향을 다수 의견 중시의 원칙하에 초·중·고별로 추론해 보시오. (500자 내외, 210점)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출제 의도 및 해설

<2014. 11. 22(토), 오후 14:00 ~ 16:00>

1. 출제 의도

한국외국어대학교 2015학년도 논술고사(상경대학, 글로벌경영대학, LD학부, LT학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전제로 실시되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준수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 둘째,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맞는 인재를 선발한다.

문제는 4개가 출제되는데 I 과 II로 이루어진다. I 은 두 개의 자료로 구성되는데 이를 통해 문제1과 문제2가 주어진다. 문제1은 200자 내외로 자료1과 자료2의 요지를 각각 설명하는 것이다. 자료1은 하향식 사고방식에 기초한 통찰의 의미와 의의에 대해 논하고, 자료2는 고정관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제는 학문 탐구를 하는데 필수적인 기초자료의 요지 파악과 요약 능력을 측정하려는 것이다.

문제2는 자료1의 관점에서 자료2가 지적한 한계를 논하는 것이다. 곧 하향식 사고방식의 관점에서 고정관념이란 사고/판단 방식이 가지는 한계를 논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두 개의 자료를 각각 적절하게 이해/파악한 후 주어진 발문에 따라 상관성을 적절하게 논해야 한다. 자료2는 영문으로 주어졌다. 영문 자료를 제시한 것은 지식과 정보가 유례없이 빠르게 유통되는 시대 변화를 감안한 것이다. 지구촌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정신을 감안할 때 영어 실력은 학생 선발의 기본 요건 중 하나이다.

II 는 3개의 자료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문제3과 문제4가 주어진다. 자료3은 학교를 구성하는 3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의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다. 자료4는 문학작품인 이문열의 '금시조'이고 자료5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독서'에 나오는 한글 관련 지문을 재구성한 것이다. 문제3은 자료3과 자료4를 가치관 중심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자료3의 등장인물인 석담과 고죽은 서화에 대해 다소 상반된 가치관을 드러내는데 고죽이 도를 중시하는 데 비해 고죽은 예/법을 중시한다. 이것을 자료3에 적용한다면 석담이 도덕성을, 고죽이 기본 지식, 개성과 창조성을 중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주어진 두 개의 자료를 적절하게 이해/분석/비교하는 능력을 측정하려는 것이다.

문제4는 자료3의 설문조사 결과를 자료5-가의 주된 가치에 입각하여 해석한 후 자료5-나의 주제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목표의 바람직한 방향을 다수 의견 중시의 원칙하에 초중고 각각으로 추론하는 것이다. 자료5는 두 개의 소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앞 부분은 한글의 창조성/독특성을, 뒷부분은 한글의 통합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우선 자료3을 개성/창조성이라는 가치에 기반하여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런 후에는 통합성이라는 측면에서 학교 교육목표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은 자료3에 제시된 다수 의견 중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자료3은 학교 교육의 세 주체가 모두 기본 지식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주어진 자료들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주어진 문제의 관점에서 적용하고 추론하는 것이다.

이상의 4문제는 각각 다음의 의도로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I 의 문제1과 문제2는 요지 요약, 자료에 제시된 특정한 논점에서 다른 자료의 문제점을 논하는 것으로 요약 능력과 제한적인 논술 능력을 측정하려는 것이다. II 의 문제3과 문제4는 두 이질적인 자료를 특정한 논점에서 비교·분석하기, 제시된 몇 개의 요건들을 충족하며 적용하고 추론하기를 통해 비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적용과 추론 능력,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제시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2. 해설

가. 자료 출전

논술고사에 활용된 국문과 영문 자료는 독립된 저작물에서 추출하기보다는 원저에서 관련 내용을 추출한 다음 이를 출제의도에 맞게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국문 자료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비롯한 다양한 간행물 가운데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여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해하기 쉽도록 운문하여 사용하였다. 논술고사에 활용된 <자료>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자료 1>

출처: Wolfgang Köhler, *Die Aufgabe der Gestaltpsychologie* 외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2>

출처: Glassman E. William의 *Approaches to Psychology*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3>

출처: 이은주, 「통계, 학교를 말하다」

<자료 4>

출처: 이문열, 「금시조」

<자료 5>

출처: oo출판사, 고등학교『국어』

나. 각 자료 요지

<자료 1>

게슈탈트 심리학과 통찰을 중심으로 하향식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즉 객관적인 개별사실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에서 부분을 조망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해야만 효율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자료 2>

기존지식 혹은 경험을 단편적으로 적용하는 고정관념을 비판한다. 고정관념은 과거의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 형성된 지식이 일반화되어 고착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무시하고, 결국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료 3>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기대가 교사, 학부모, 학생 집단이 다름을 보여주는 표이다. 교사 집단은 ‘도덕성’을, 학부모 집단은 ‘기본 지식’을 학교급과 상관없이 학교 교육목표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학생 집단만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학부모 집단과 같은 선호도를 보이다가 고등학교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집단과는 전혀 다르게 ‘개성과 창조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료 4>

서화에 대한 사제 간의 관점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스승인 석담 선생은 서화에서 도(道)를 예(藝)나 법(法)보다 우선이며, 이 둘을 아울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제자인 고죽은 이러한 스승의 생각에 반하며 수례와 소에 빚대어 예(藝)가 먼저고 도(道)가 뒤라는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자료 5>

(가)에서는 한글이 문자 창제 과정과 원리가 밝혀진 문자임을 밝히며, 자음의 기본자나 모음의 제자 원리를 설명하며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한글의 특성으로 ‘독창성’을 말하고 있다. (나)에서는 창제자가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통합성을 발휘한 한글의 특성을 초성·중성·종성 체계, 철학, 사상, 음운학 이론, 각종 문자 자료 등을 언급하며 밝히고 있다.

다. 내용적 측면

- ① 한국외대의 키워드인 국제(international studies), 문화(cultural studies), 언어(language studies) 연구를 내용요소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지문을 활용하였다.
- ② 한국외대의 통합논술 교육의 목표인 1. 통합적 통찰 능력 및 인식 능력의 함양, 2. 통합적 비판 능력과 판단 능력 고양, 3. 전문인으로서 적합한 통합적 탐구 능력과 통합적 적성 개발, 4. 올바른 가치관 정립, 5. 정보화 시대의 통합적 정보 취득 역량 함양, 6.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표현 능력 개발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하였다.
- ③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 ④ 제시문은 개념과 쟁점을 도출할 수 있는 지문을 활용하였다..
- 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 ⑥ 실험결과, 비평, 개념 적용 사례의 다양한 범주의 내용과 도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다.
- ⑦ 기본적인 학습 역량에 주안점을 두어 앞의 두 문제에서는 요지 파악, 비판 평가를, 뒤의 두 문제에서는 비교분석, 적용 및 추론능력을 물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라. 형식적 측면

- ① Part.1에서는 국문, 영문 자료 하나씩으로 구성하고, Part. 2에서는 국문 자료 세 개로 지문을 구성한다.
- ② 첫 번째 문항은 요지를 서술하도록 하였다.
- ③ 두 번째 문항은 비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자료 2>의 관점에서 <자료 1>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논하도록 출제하였다.
- ④ 세 번째 문항은 <자료 3>과 <자료 4>의 비교 대상을 제시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출제하였다.
- ⑤ 네 번째 문항은 표나 그래프 자료에 대해 적용, 추론할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하였다.